

1 사회적 거리두기란 무엇인가

□ 추진 상황

- (개요) 감염병 확산 규모를 줄이거나 늦추기 위한 비약물적 통제조치로, 사람들 접촉 가능성을 줄여 감염률과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목적
- (추진상황) 일반 국민 대상 접촉 최소화를 지속 권고 → 개학 연기·이용시설 휴관 등 일부 조치 외에는 국민·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 요청

- △ (행동수칙) ①모임과 외출 자제 및 사람들 간 접촉 최소화 ②닫힌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자제, ③감기 증상 시 3~4일 경과 관찰 후 콜센터 문의 및 선별진료소 방문
- △ (학교, 직장) 어린이집 휴원, 유치원·학교 개학 연기, 기업 재택근무 권고 등
- △ (집단행사) 감염전파 가능성, 참가자의 취약성 등 고려하여 취소 또는 연기
-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유증상자 등 업무 배제, 방문객 이용 제한 등

□ 전문단체 권고

① 대한 의사협회 권고문(2.28)

- △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에 익숙해지기 위한 1주일 제안
- △ 마치 큰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무르기
- △ 외출과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 △ 종교 활동이나 모임, 행사는 모두 취소
- △ 기업은 직원들의 재택근무, 연가, 휴가 권장
- △ 정부·지자체는 코로나19 관련 없는 직원의 한시적 2부제 근무
- △ 마스크 사용, 손위생 관리, 개인물품 위생관리 철저

②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권고문(2.29)

- △ 기업 재택근무 확대, 대면 서비스 가능한 전화나 온라인 서비스로 대체
- △ 학교·학원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 △ 다중이용시설(박물관, 극장, 영화관, 도서관 등) 휴관
- △ 대규모 행사, 집회, 종교 활동 중단
- △ 필수 업종,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업 활동 중단
- △ 사람들 간의 접촉이 있는 스포츠, 여가 활동 등 중단
- △ 국내외 출장, 교육연수, 해외여행을 연기
- △ 지역 간 이동 자제 △ 병의원, 시설 등 방문 자제
- △ 가능한 자택 체류 △ 관혼상제 관련 행사도 가능한 연기하거나 소규모로 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란?>

□ 개념

- ‘사회적 거리두기’란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
 - 치료제나 백신을 사용한 중재전략과 구분되는 비약물적 중재조치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의 일종
 -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모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층위의 방식이 존재

<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류 예시 >

방법	목적 및 근거
확진자 격리	확진자를 감염되지 않은 인구집단과 분리해 치료, 전파 최소화
접촉자 격리	접촉 후 증상발현시기(또는 전파가능시기) 사이 전파 최소화
자가체류 권고 (stay-at-home)	자발적으로 자택에 머물도록 해(특히 고위험군), 전파와 감염가능성 최소화
휴교	학령기 아동들의 접촉을 최소화해, 해당 인구집단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 (학교 밖에서 활동도 함께 제한해야 효과적)
집단시설 등의 출입제한	고위험군이 다수 거주하여 감염병 전파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보호. 지역사회감염 종료 시까지 유지 필요성 높음
군중모임·축제 등의 금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해 전파를 최소화. 개방된 공간에서 밀접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예. 스포츠관람 등)도 존재
지역 단위 통행금지	고위험지역과 저 위험지역 간의 전파를 최소화.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휴교, 대중 행사 금지와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시행 및 완화의 결정

- 코로나19는 ① 어떻게 전파되는지 ② 얼마 동안 노출되면 감염되는지 ③ 감염자가 언제부터 얼마나 전파 시키는지 ④ 계절적 영향을 받는지 ⑤ 아동을 통한 전파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 불분명하여 정확한 추계 어려우나,
- 현재까지는 지역사회 전파양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기에, 결단력 있게, 광범위하게 실시할수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